



# 사이비 언론행위 고발하던

# 10 여나먼 유사언론 피해 구제

글 KAA + bigfrog 그림 [지]



네 알겠습니다.



김변호사님  
정부장입니다.



또 M신문인가요?



지난번 생산공장 위생  
상태에 대한 허위보도는  
기사를 내리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경영  
실적 왜곡보도는 법적  
대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나 광고  
요구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 주세요.



김토타보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중위에서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질까요?



M신문이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이 되니  
100% 장담은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기업인데,  
가해자인 신문사가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이랑요?



언중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잖아.



먼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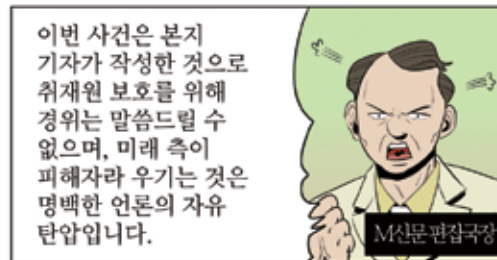
신용도 하락으로 주가는  
물론 판매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참에 나쁜 언론에 대한  
대응 선례도 남길겸 형사소송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정정보도 청구 :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반론보도 청구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손해배상 청구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

\*공갈미수죄: 공갈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서초동 법원 앞



김변호사  
정말 수고했어요.



손해배상액이  
예상보다 세게 나왔어요.  
정정보도도 받아냈고  
승소했으니 형사소송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 증언이 있어 형사소송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매체 과잉으로 언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시작 후 6개월 뒤...

### M신문 폐간 위기, 편집국장 박씨 경질



M신문이 폐간 위기에 처했다.  
편집국장 박씨는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하고 결국 퇴임했다.  
M신문은 지난주 매각에 나섰지만  
매수하겠다는 곳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장 고생 많았어요.  
향후에도 언론과 상호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기관리 메뉴얼대로  
대응해서 홍보의  
정도(正道)를 지켜가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대응  
메뉴얼을 보강해서  
홍보실뿐 아니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END